



Lk 21,36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예레미야 33,14-16

화답송



(후렴)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필리피 1,4-6.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3,1-6

성가 | 입당성가 [329]1~2절 예물준비 [501]
영성체 [501] 파견 [89] 1~3절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조창호	유정옥 유스티나
모친 김주연 안나	송요셉
모든 스테파노	박아그네스
임순남 엘리사벳	박알버트
생미사	봉헌
최병은 루치아 영명축일	허철범 베드로
이하나 체칠리아의 무사한 출산	방상욱 베드로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양미숙 마리아
부원희 세실리아 영육건강	유정옥 유스티나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박알버트
오상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박알버트



오소서
주 예수님 !!

대림시기-영적 변화와 성장의 시기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2월 8일	백이백	김진수	김승연	김승연	김영숙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12월 14일	조소연	이태주	류유리	류유리	-	이유스티나 김실비아
12월 15일	정유진	강호영	이경자	이경자	유정옥	조바실리오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에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연례회

연도: Rip 배만진 마르코

▶2024 대림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기다림"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받으세요. 특강과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강사 : 김학범 알폰소 신부님(메리놀 미국관구 책임)
일시 : 12/15(주일) 미사직후 10:30-14:30
일정 : 강의 10:30-12:00(다미안 홀)
 점심 12:00-12:30(김밥, 다미안 홀)
 판공 12:30-14:30(아래성당 고해소)
고해사제 : Frs. 김학범 알폰소,
 김찬미 가비노(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진열 가를로

▶2024 청년들을 위한 대림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성"

강사 :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이튼타운 성당 주임)
일시 : 12/14(토) 6시 청년미사중
일정 : 판공: 16:00-17:50(아래성당 고해소)
 특강: 18:00-미사중 대림특강(아래성당)
고해사제 : Frs. 장재명 파트리치오, 김진열 가를로

▶성사표

대림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성사보신후 성사표를 기록하여 사무실앞 통에 넣어주세요

▶고해성사 없습니다. 12/16/2024 ~ 1/12/2025

교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대림특강과 판공성사'의 날짜에
오셔서 미리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월 12일
까지 고해성사가 중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24(화) 19시 : 주님 성탄대축일 밤미사
12/25(수) 09시 15분 : 주님 성탄대축일 낮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12/1 이은경헬렌 \$100

▶대림 판공성사 공동 보속

아래의 기도보속 1가지 + 실천보속 1가지를 선택하여
2025년 1월 30일까지 실천함.

기도 보속 (1가지 선택)	실천 보속 (1가지 선택)
① 묵주기도 5단 바치기 (어려운 이웃위해)	① 아래 추천된 <영적서적>중 1권을 선택하여 읽기
② 루가복음 1장~ 2장 읽기, 야고보서 1장~ 5장 읽기	② 가족, 친구, 은인에게 카드나 편지 보내기
③ 성체 앞에 앉아 조배 (20분 이상)	③ 타인위해 1시간 봉헌(봉사) :환자, 어르신 말벗 해드리기, 이웃돌보기 등등

*위 공동보속 실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각자 보속을 정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서적> 추천

대림시기,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교우분들께
<영적서적> 추천드립니다. 영적독서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가꾸어 지혜의 샘터가 되며, 변화를 돕는 비결입니다.

*도서부(다미안홀)에서 구입가능. \$15 도서상세 설명: 주보3면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이 책은 혼자 또는 함께 교부들의 작품 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운 안내서이다. 역은아: 장재명 신부
	「궁금해요, 기도!」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쉽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준 책이다. 저자: 인만희 신부. 글라렛 선교 수도회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사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 있었구나"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치우

▶<영적 서적>

구입처: 다미안 홀 '도서 성물부'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이 책은 혼자 또는 함께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운 안내서이다.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두 가지 원천이라고 고백한다. 성전은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 있는 전통'을 말한다. 따라서 교부들의 저서를 읽는 것이 성전을 아는 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주님의 기도'를 해설한 치프리아노 성인의 작품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읽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엮은이: 장재명 신부. 로마 Augustinianum에서 교부학, 교부신학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옥토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WONJO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er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궁금해요, 기도!」 저자: 인만희 신부. 글라렛 선교 수도회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준 책이다. “기도할 때 자꾸 분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등 기도가 되지 않아 끄떡대는 우리 모두의 물음에 하나하나 답을 남기는 방식이라 더욱 반갑다.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본당이나 교구의 경우처럼 한국천주교회 전체에도 주보가 있는데,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입니다. 1838년 12월 1일,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그때까지 주보로 모시던 성 요셉 대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조선 교구의 주보로 인가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841년 8월 22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1831-1846 재위)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898년에는 명동대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라는 가브리엘의 인사에서 성모님이 이미 어떤 은총 지위에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페 1.3-14에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죄를 앞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물려받고 성령께서 거처하신 마리아의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하다는 믿음입니다. 대축일의 본기도는 이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성자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어, 동정 마리아를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게 하셨으니..."

8세기 초반부터 동방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탄생'과 관련해 12월 9일에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의 어머니 성녀 안나의 잉태 축일을 지냈습니다. 10~11세기 영국에서는 12월 8일에 성모 마리아의 잉태 축일을 지냈고, 이는 곧 프랑스 전역에도 전해졌습니다. 중세 때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치열한 논쟁 중에도 이 축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854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 교황(1846-1878 재위)은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을 통해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었다"(DH 2803).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의(敎義) 선포가 새롭게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12월 8일이 주일과 겹쳐 전례일의 등급상 대림 시기의 주일이 성모님의 대축일보다 우선하기에, 이날을 하루 늦춰 12월 9일에 지냅니다. 대축일 미사의 감사송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시고,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성자의 맞갖은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 지극히 깨끗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저희 죄를 없애시는, 죄 없으신 어린양 성자께서 나셨으니, 주님께서 동정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 위에 들어 높이시고,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은총의 전구자요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미리 정하셨나이다." ☺